

교육부 - 기획예산처 합동 국립한밭대학교 앵커 추진 현장 방문

- 5월 29일(금), 대전광역시 국립한밭대학교 현장 시찰 및 간담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와 함께 5월 29일(금) 국립한밭대학교(대전광역시 소재)를 방문하여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합동 현장방문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한 것을 계기로 앵커 추진 현장을 시찰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애로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기획예산처 합동 앵커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6.5.29.(금) 14:00, 대전광역시 국립한밭대학교
- 참석: 교육부 대학지원관,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대전광역시, 대전 소재 대학 등

현장 시찰 후의 간담회에서는 양 부처와 대전시, 관내 대학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전시와 국립한밭대학교의 앵커 추진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눈다. 양 부처는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 추진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의 지방우대 기조와 지역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지역대학의 입학 지원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기존 라이즈 체계를 '학생 지원 집중, 5급 3특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앵커 체계하에서 대전광역시는 과학 역량을 가진 정부출연연구원(이하, 출연연)을 대학과 연계하며 지역 혁신을 이끌기 위해,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한밭대학교는 '지·산·학·연 일체 혁신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는 대전 소재 산학협력중심 대학이다.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출연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및 우주국방 등 분야에서 특성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학과 출연연 간 기반 설비(인프라)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수요 기반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전략산업 분야와 관련된 핵심기술 개발과 기술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5년도에는 'AI융합대학' 및 '융합연구원' 설치, '반도체 공공클린룸' 완공 등 학사제도 개선과 기반 설비 구축에 주력하였으며, 인재양성 관련 프로그램·교육 등 참여 학생 14,172명, 기업 참여 1,200건, 창업 9건, 기술 개발 26건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과 대학의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오늘 청취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과 지역이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마련하고, 우수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정향우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은 "지역대학의 역량을 지역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학생, 대학, 기업, 지역사회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예산처는 앵커가 현장 중심·성과 중심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재정투자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교육부 대학지원관 지역대학지원과	책임자
		담당자
		담당자
	기획예산처 사회예산심의관 인적자원예산과	책임자
		담당자

